철의 도시가 아닌 사람 냄새가 가득한 곳, 포항

글. 포항장량LH현장 김동완 사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포항을 안내할 포항장량LH현장의 김동완 사원입니다.

포항에 내려온 지 3개월 남짓 되었지만, 우리 현장이 위치한 포항소개와 더불어 그 동안 제가 밤마다 길 헤매면서 알아낸 알짜배기 정보들을 짧게 짧게! 모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 현장이 있는 포항은 크게 남구와 북구로 나누어 집니다. 남구는 포항시청을 중심으로 발달된 시가지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북구쪽에서는 ‘구 시가지’라고 부릅니다. 5거리, 6거리 등 복잡한 도로들과 낡은 건물들이 많긴 하지만 서울의 종로나 중구처럼 죽도시장과 같은 큰 전통시장들이 있어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포항의 신시가지라 불리는 북구는 현재 개발 중인 곳으로 아파트 및 원룸 등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화려함은 없지만 풋살 경기장, 베드민턴장, 어린이 공원 등 시설들이 많아 가족과 함께 지내는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에 방문하기 전 많은 분들이 가진 편견 중 하나가 아마도 제철소로 인해 바닷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동해의 일부분이 포항은 깨끗한 바다빛을 유지하고 있으면, 여름이면 동해안의 그 어떤 해변보다도 많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을 해변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복을 양식하는 곳들도 있으니, 포항의 수질은 우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낯의 포항이 우리가 생각했던 포항과 달라 당황하셨나요? 하지만, 포항의 밤은 아마도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포항의 밤. 특히 북부해수욕장의 밤은 화려하다 못해 빛을 발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많은 분들이 바다 저 멀리 어딘가의 화려한 호텔이 네온사인을 생각하시겠지만, 화려한 포항밤의 빛은 바로 제철소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포항에 방문하시는 분들 오해 마십시오!! 포항의 밤은 유흥으로 빛나는 것이 아닌 24시간 열심히 땀흘리는 제철소의 근로자들이 밝히는 빛이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하지만, 저 역시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 바로 호랑이꼬리라는 의미를 가진 ‘호미곶’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으로, 그 절경이 너무나도 수려해서 ‘조선십경’의 하나로 꼽힌 곳입니다. 호미곶에 가신다면 멋진 경치와 더불어 꼭 같이 보셔야할 조형물 ‘상생의 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서로 도우며 살자’라는 의미로 새워진 조형물로 아침해가 떠오르는 모습과 겹쳐보면 마치 손위로 해가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니, 호미곶과 상생의 손은 꼭 해돋이 전에 방문하시길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아무래도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겠지요?

포항에 오시면 꼭 먹어봐야하는 유명한 먹거리가 3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물회요, 둘째가 과메기 셋째, 충무김밥 입니다.

먼저, 물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 회와는 틀리게 시원하고 얼큰한 육수 맛에 먹는물회는 바닷가 근처에만 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선한 먹거리가 지천이라 그렇지 않을까 하네요. 이곳 포항의 현장 식구들과 함께 가본 곳은 “환여회집” 이라는 곳입니다. 북부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조금 위쪽에 위치한 환호공원 근처에 있는 곳이며, 1박2일에도 나왔다고 하네요. 시원하고 얼큰한 육수에 회, 배, 야채 가 들어간, 물회 한 사발을 먹고 나면 하루가 시원합니다. 우리 포항식구 중 한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회에 밥 한 공기 말아먹어 줘야 물회를 제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메기입니다. 과메기의 원조는 누가 뭐라해도 포항의 구룡포일겁니다. 저도 아직 구경도 못해봤기에, 이번 기회에 사진으로 구경해봤습니다. 과메기는 신선한 꽁치를 겨울철에 말린 것으로 말린 청어인 ‘관목청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합니다. 꼬챙이 같은 것으로 청어의 눈을 뚫어 말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데, 지금 한창 말리고 있으니 조금 더 말라서 맛이 한창 올랐을 때(?) 맛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조인 구룡포는 호미곶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위치한 곳이니, 포항에 내려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충무김밥입니다. 우리 현장 공사과장님의 넘버원 메뉴인 충무김밥은 비록 통영이 원조이지만, 우리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식당에서도 원조에 절대 밀리지 않을 것 같아 살짝 소개해 봅니다.

현장 인근의 ‘자갈치 아지메’라는 식당의 충무김밥은 적당히 간이된 김밥과 함께 나오는 무와 오징어, 어묵만으로 주문받는 주인 아주머니를 놀라게 할 정도로 끊임없이 손이 가게 하는 맛입니다.

여러 모습을 가진 포항. 이 정도면 어느정도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산천이 아름답게 물드는 이번 가을 포항 잊지 말고 한번 들려주세요. ^^